

12

군포소식

2014. 12 vol. 331



책 · 철쭉 · 행복 · 청렴 도시

발행일 | 2014년 12월 1일 발행인 | 군포시장 편집 | 군포시 홍보실 전화 | 031-390-0663 팩스 | 031-390-0069

정기구독신청(무료)

군포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문화공보과로 전화신청 하세요 031) 390-0663

03 핫이슈

2015 군포의 책 선정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

07 행복한 사람들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 맛보다
자원봉사자 심준화 여사

12 군포의 역사와 문화

철길과 꽃길이 만나 문화산책길로 변신
골프장둘레길

13 책 읽는 군포

부곡 3단지의 젊은 도서관
토리작은도서관

군포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o2gunpo

t twitter.com/gunpocity

f facebook.com/gunpocity



gunpo 큰 시민 작은 시
www.gunpo21.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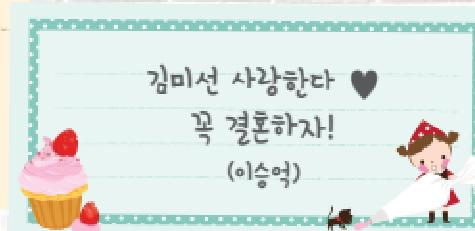
사랑과 우정의 배달부

〈군포소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과 우정이 담긴 소식을 전하는 시민, 받는 시민 모~두 행복하세요! ^~



어머님~
13년 동안 손주들 키워주시느라 넘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삼남매맘)

귀효미님,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해요~
(님꺼한)



뽀동이 . 지동이 엄마 사랑해~ ♥
(동동이 아빠가)



보석보다 빛나는
고운, 현아, 혜진, 예서야~
초등학교 가서도
진한 우정 변치 말기UEL
고마워, 사랑해!!!
(현아 이모가^~)

지연아!
대학 수시1차 합격
축하해~~♥ ♥ ♥
(엄마 김순월)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이 주인입니다

책읽는 군포는 군포시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도시 경제성 확립의 성공과 혁신을 위해 시는 '책읽는군포팀'을 신설하고, 독독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민과 함께 마련 추진하며 가족과 사회가 책으로 소통하고 행복해지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책읽는 군포

칠쪽대축제가 열리는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 군포는 칠쪽이 만개, 아름다운 분홍빛 꽃을 곁이 시 전체를 물들입니다.
칠쪽대축제는 기울의 책축제와 함께 군포의 대표적인 축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 문화예술의 향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칠쪽도시 군포

군포는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아동, 여성,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이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군포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청렴'입니다.
공직자 최고 덕목과 의무로서 '청렴'을 실천하면서 마월, 매주, 매일 청렴 의무실천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2012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지자체 청렴도 1위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청렴도시 군포





사람과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힘!

2014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 『책읽는 군포』

2015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군포의 책

군포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선호도조사

한 권의 책으로 소통하고 문화적 공감대를 높여가기 위한 군포의 책 선정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민여러분께서 2015년 군포의 책으로 추천해 주신 395권의 후보도서를 엄선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종 후보도서 5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책 읽는 시민이 참여해 “2015년 군포의 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간 | 2014. 12. 2 ~ 12. 17(16일간)

참여대상 | 책 읽는 군포를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 or 길거리 투표

- 인터넷 설문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참여마당
 - 길거리 투표 : 시청, 도서관, 산본로데오거리, 전철역 등
- ※ 길거리 투표는 조사기간중 주말을 이용하여 3일간 실시 예정
- 설문조사 : 관내 학교(학생,교사) 및 독서동아리 등

조사내용 | 2015년 군포의 책 추천(후보도서 5권 중 선택)

군포의 책
선정과정

▶
군포의 책
시민추천

▶
선정위원회
후보도서 5권 선정

▶
평가 및
선호도조사

▶
군포의 책 선정
최종 1권 선정

문의 | 책읽는군포과 390-0905

04

문화재단 · 시설관리공단



'피출소가 돌아왔다'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14. 12. 11(목), 14:00~16:00
-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발제 및 토론자 : 국회의원, 경찰청 간부, 교수, 문화재단 간부
- 대 상 : 예술가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동호회, 대학생, 전국 지역문화재단 임직원 등
- 내 용 :
 - 파출소 유류 공간 활용사례(군포를 중심으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전국의 파출소 유류 공간 실태 및 운영현황
 - 파출소 유류공간의 지역주민 생활문화 공간화를 위한 정책 방안

예술진흥팀 390-3514

제1회 군포문화재단 수강생 발표회 '다락모락(多樂謨樂)'



- 기 간 : 2014. 12. 3(수)~12. 9(화)
- 공 연 : 12. 3(수), 19:00, 수리홀
- 개 막식 : 12. 5(금), 17:00, 전시실
- 전시회 : 12. 5(금)~12. 9(화), 전시실
-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및 전시실
- 내 용 : 군포문화재단 산하기관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공연 및 작품 전시

예술진흥팀 390-3520

말하는 그림책! '그림책 작가 권운덕과 함께'

- 일 시 : 2014. 12. 18(목), 19:30
-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철쭉홀
- 내 용 : 낭송, 작가와의 대담, 애니메이션, 일인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권운덕 작가의 대표작들을 감상해보는 그림책 이야기 콘서트

여성회관팀 390-3084

- 관람대상 : 학부모, 교사, 사서 등 그림책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6세 이상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입장)
- 예술진흥팀 390-3519

군포시여성회관 제55기 교육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14. 12. 9(화)~12. 15(월)
- 접수과목 : 112개반 3,245명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회관팀 390-3084

크리스마스 특강 냅킨아트로 꾸미는 양초장식

- 운영일시 : 2014. 12. 17(수), 10:00~11:30
- 장소 : 여성회관 표현교실(4층)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수강료 : 5,000원
- 재료비 : 10,000원

여성회관팀 390-3083

크리스마스 특강 브라우니슈 케이크 만들기

- 운영일시 : 2014. 12. 23(화), 10:00~12:00
- 장소 : 여성회관 요리교실(4층)
-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 수강료 : 5,000원
- 재료비 : 10,000원

여성회관팀 390-3083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리모델링



군포시민체육광장의 테니스장이 12월 초에 리모델링이 완료돼 테니스 애호가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1996년 개장된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에는 지역에서 제일 많은 9개 코트가 조성돼 있어 그동안 많은 테니스인의 여가활동 향유와 실력향상에 대한 역할을 했다. 또 이곳에서는 각종 지역대회 및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등 명실상부 군포를 대표하는 테니스장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시설이 점차 노후화되어 이용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자 군포시와 군포시시설관

리공단은 국·도비를 확보, 지난 8월부터 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클레이코트 7면을 최신의 하드코트로 전면 교체했고, 조명탑을 야간 운동에 적합한 고효율 기기로 바꿨으며, 휴게 의자 등을 추가 설치해 테니스장 이용 환경을 최상의 상태로 개선했다.

앞서 공단은 올해 초 테니스장의 인조 잔디 2면을 하드코트로 교체해 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이뤄진 것이다.

임명진 이사장은 군포시 테니스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새로 개장한 테니스장이 앞으로 군포시 체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체육광장 390-7620

다자녀 시민 차량 주차요금 50% 감면

군포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가운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막내가 만 15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군포시민의 차량에 시간 주차요금의 50% 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서비스 혜택을 위해서는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회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발급된 다자녀카드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전달되며, 할인 서비스는



유효기간 내에 한정된다. 막내 자녀가 만 15세가 되면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

차는 감면 대상이며, 차량번호 변경 등의 사용이 발생하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상세 이용 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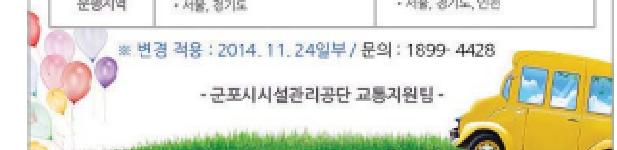
교통CS센터 390-7686, 7682

군포시 교통약자 콜차량 이용 확대

구분	현행	변경
이용요금	• 1,500원(초과 200원)	• 1,200원 <10km 이내, 5km 초과 100원/km>
이용대상자	• 복지카드 소지자 1.2급 • 노인장기요양인정자 1.2급 • 임신 8개월 이상 일신부	• 복지카드 소지자 1.2.3급 • 노인장기요양인정자 1.2.3급 • 임신 5개월 이상 일신부
운행지역	• 서울, 경기도	• 서울, 경기도, 인천

* 변경 적용 : 2014. 11. 24일부 / 문의 : 1899-4428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군포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일시	차수	부의안건
12. 1(월) 10:00 개회	1	1.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7.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15년도 시정운영방향 설명(시장) ※ 201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기획감사실장)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2(화) ~ 12. 11(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2. 2~12. 11)
12. 12(금) 10:00 개회	2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일시	차수	부의안건
12. 12(금) 10:00 개회	2	5.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7.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8. 2015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9.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15(월) ~ 12. 16(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206회 임시회 운영

2015년도 시 업무계획 청취, 조례 21건 재·개정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20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열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이뤄졌다.

조례특위(위원장 이석진)에서는 21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이 진행됐고, 업무보고특위(위원장 박미숙)에서는 집행부 전 실·과·소·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업무보고 청취는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검토 차원이어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홈페이지 www.gunpocouncil.or.kr 전화 390-8710

의원 기고

에너지 자립·절약 목표를 설정하자

성복임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9일 본격 시행됐다. 이에 한국전력은 각지에서 '송주법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군포에서도 얼마 전 관계지역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정된 송주법은 765KV의 전력설비 중 송전탑의 경우 1,000m 이내, 변전소는 울타리 기준 850m 이내 거주 주민에게 가구별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50%)과 주민이 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50%)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45KV의 전력설비인 경우는 송전탑 700M 이내, 변전소 600M 이내 거주 주민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규정한다.

그날, 설명회에서 본인은 시간이 허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송전탑의 전자파 문제를 고민 없이,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소리로만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전탑 인근 주민의 피해 보상은 단순 보상·지원금을 나눠 주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다른 지역의 전기 사용을 위해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이 건설된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 건강 등의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수많은 송전탑과 송·변전시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역의 주민들 역시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 축소나 폐쇄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확대를 추진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 중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맞추려면 값싼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의 말처럼 정말 대안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본인은 몇 년 동안 울곡아파트와 가야아파트 등의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면서 절전만 해도 10% 이상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운동에 참여했던 주민들도 생활 속에서 환경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큰 보람과 만족감을 표현했다. 즉,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소비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수립돼야 한다. 원자력의 생산단가가 싸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국민들은 더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주민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서울시의 원전 1기 줄이기 운동처럼, 지방과 수도권의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상업·가정·학교·행정 등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 군포의 에너지 소비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2015년에는 군포의 에너지 자립목표와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아래 하나하나 실천을 배치하자.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포를 물려주기 위해, 선배들은 이렇게 실천했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습의 진수~ 직접 확인하세요!

군포시 행복학습센터 성과 발표회 12월 12월 평생학습원에서 열려

학습을 놀이처럼, 놀이 학습을 일상처럼, 배움이 행복을 창출하는 곳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과 공감이 화려한 꽃처럼 피어나는 장소들.
 군포시 행복학습센터가 그 주인공이다.

올해 6월 12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군포가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 새롭게 추진되는 동(洞) 단위 행복학습 센터 운영 자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소의 행복학습센터와 1개소의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때 행복학습센터는 사전 조사와 설문을 통해 적극성과 주민 참여도가 높은 곳으로 확인된 산본1동·수리동 주민센터, 삼성마을 5단지 작은도서관에 자리를 잡았다.

거점센터는 평생학습도시 군포의 중추를 맡은 평생학습원(구 군포문화센터)이 담당해 각 행복학습센터에서 전개될 학습매니저 양성,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공연·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총괄·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시는 "군포의 행복학습은 '사람으로 통하다'라는 주제로 추진돼 시민 간 거리를 허물고, 재능을 키우며,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등 도시의 행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며 "교육부도 이를

높게 평가해 군포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때부터 6개월이 흐르고, 각 행복학습센터가 그동안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군포시 행복학습센터 성과 발표회'가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전시실과 상상극장 등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6개월간 평생학습센터 3개소와 거점센터에서 진행된 15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손 글씨 캘리그라피(산본1동), 실버 종이접기(수리동), 내 삶을 그리는 드로잉(삼성마을 5단지)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전시한다.

또 꽃중년 연극교실(수리동), 스마트폰 영화 창작 '3분 상상영화교실' (수리동), 스토리가 있는 팝스 라인댄스 수강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다음은 작품과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도 꾸며진다.



10년 후를 디자인하는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된 행복학습센터 시스템. 청소년교육특구이자 평생학습도시인 군포는 명성에 걸맞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리더와 학습매니저, 평생학습 전문 강사 등을 각각 수십여 명씩 양성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재미를 가족과 이웃에게 열성적으로 전파할 선도자들을 대거 배출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은, 군포시 행복학습센터 성과 발표회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0

수리동



스마트폰 영화 창작교실



수리동



실버 종이접기



산본동



실버체조교실 서포터즈 교육



캘리그라피로 우리 동네 다시보기

삼성마을



내 삶을 그리는 드로잉



스토리가 있는 팝스 라인댄스,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맛보다

자원봉사자 심춘화 여사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심춘화 여사



독거노인 반찬 마련 기금을 위한 바자회에서

심춘화 여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남들 앞에 드러나는 것,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하시면서 매우 조심스러워 하셨다.

2014년 군포시 자원봉사자의 날에 수상자로 선정된 심춘화 여사는 독거노인 반찬전달,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구호미 전달, 야간방범순찰, 안전 모니터 활동,김장봉사 및 집고치기 활동, 재난재해현장 봉사,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의 범위가 끝이 없었다.

“제가 군포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95년입니다. 새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사 왔던 것인데 1997년부터 아파트 부녀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지요. 부녀회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봉사 단체들과 연결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와 폭도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독거노인 반찬 전달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장,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구호미와 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회원들의 회비와 자치단체의 지원, 기업이나 기관의 협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봉사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독거노인의 감사 편지

그런데 이러한 지원도 사회 분위기나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심춘화 여사는 그것이 안타깝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 90여 분에게 전달하던 반찬봉사가 얼마 전부터 한 달에 두 번으로 축소되었다. 후원금이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직접 현장에서 봉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다.

“혼자 생활하시는 노인들을 방문하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평소 말

벗이 없다보니 우리가 방문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도 방문해야 하고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 그것이 안타깝지요.”

그렇게 방문을 하다보면 어느 집은 이사를 하면서 문 앞에 편지를 두고 가는 분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고마웠다며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가시는 분의 글을 읽다보면 잔잔한 감동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가슴 아픈 경험도 종종 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방문했는데 그 집 문 앞에 고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노란 등이 걸려있는 것을 볼 때이다. 비록 연로하신 분이었지만, 얼마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을 확인한다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자 애통함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통해 좋은 인연 맺고 삶의 지혜도 터득

지난 10월 26일 부곡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 소방대와 함께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간 사람도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급식차에 150명분의 식사를 싣고 소방대는 물론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급식봉사에 나섰던 것이다.

화재나 물난리,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재난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어김없이 닿아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큰 슬픔에 잠겨있을 때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자리를 지킨 것도 이들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자원봉사자들이 금기시 하는 3대 요소 중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짐승에게 위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유명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해외에 나가서 봉사했다든지 하면서 남들에게 허세부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일이 끝나고

나서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수고했다는 말을 사용한다고 한다. 상대방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서로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봉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경우 순수한 봉사의 행위를 월급이나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자원봉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춘화 여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경험을 갖기를 바란다. 요즈음에는 기회도 많고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394-1365 www.gpvc.or.kr)에 문의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나 단체와 연결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내가 남보다 여유가 있거나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인연으로 삶의 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담아내며 심춘화 여사가 한 말이었다.



부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급식봉사 중인 자원봉사자들

수필

봉사, 주는 이가 더 행복한 일

정상극(산본1동)

대구에서 교직 생활을 마치고 3년여간 부부끼리 한적하게 살다, 올해 6월 초순경 가정 형편에 의해 낯설고 물선 군포로 이사를 왔다.

마침 외손녀들도 과주에서 살다가 7월 중순에 군포로 이사를 왔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교감도 쌓으며 지역 적응을 위해 한 달간 우리 집에서 놀기로 한 후 금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기로 했다.

이 시기에 손녀들은 학교 운동장에 가서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고 놀며 오가는 길과 주위 환경도 익혔고, 어느새 8월 중순이 돼서 유치원 종일반에 보냈다.

그런데 소년들의 등하굣길 어느 담장 밑은 화단에 심어진 맥문동과 담쟁이덩굴이 줄기를 뻗어 인도 길바닥을 덮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애완견들이 다니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봐서 냄새가 많이 났다.

"할아버지~ 이곳은 더러워서 냄새가 나오요, 할아버지가 청소하면 안 될까?"라는 손녀의 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도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니? 그러면 내가 꼭 치워줄게"하고 약속을 했다.

막상 어느 날을 택해 작업하려니 날씨는 덥고 도구도 없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손녀와의 약속을 미룰 수는 없었다. 한낮을 피하고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택해 집사람과 함께 여섯 번에 걸쳐 풀을 뽑았다. 매번 작업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렸다. 여러 번 해보니 비 온 뒤에 하면 땅이 굳지 않아서 아주 쉽게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더러 지나는 사람 중에는 "더운 날씨에 수고합니다"라는 격려의 말 한마디, 혹은 "시청에서 나왔어요?"라거나 "공공근로요원인가요?"라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금정초 앞 문구점 아저씨는 음료수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빌라의 한 아주머니는 일음과자를 주면서 "우리 집 앞은 우리가 정리 정돈해야 하는데 대신해 주시니 고마워요. 청소하려고 하면 청소하지 않는 주민들이 '입장 곤란하게 만든다'고 편장을 줘서 할 수가 없었다"고 말할 때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경우도 있다.

작업하기 제일 어려운 점은 더운 날씨보다 개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자리 특유의 냄새였다. 하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본 손녀들이 "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고맙습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면 그동안 힘들었던 생각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했다.

이후에도 잡초들이 자라면 손녀들은 "할아버지, 나쁜 풀들을 좀 뽑아주면 안 돼?"라고 말했고, 그럴 때면 시간을 내서 제초 작업을 했다. 초등학교도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을 할 건데,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이곳을 오갈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힘이 솟았다.

몇 달이 지나 10월 하순, 날씨가 서늘해진 시간만큼 등하굣길 담장에는 한가득 잡초가 자랐다. 그걸 볼 때마다 손녀와의 약속이 생각나고, 잡초가 우거지니 개들도 더러운 곳으로 생각하는지 자꾸 대소변을 봐 특유의 좋지 않은 냄새가 또다시 나서 하루 시간을 내 3시간에 동안 잡초제거를 마쳤다. 손녀들이 "할아버지 짱이야!"라고 말할 모습을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다. 또 여름철에 알뜰히 제초작업을 한번 한 덕에 이번에는 어려움이 적었다.

다만, 청소하는 중에도 개들이 오가며 변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치우지 않는 개 주인을 보면 알립기도 했다.

제초를 마치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장갑을 끼고 호미도 들고 있는 내 손을 본 손녀들은 벌써 알아차리고 "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라며 절을 꾸벅했다. 봉사활동으로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을 새삼 느껴 즐거웠다. 기회가 되면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



우리 가족, 하늘을 날다

시

최경옥(궁내동)

산도 없고
바다만 보이는
하늘

동글동글 솜사탕을
혹
불어놓은 듯
떠다니고 있다

달콤한 솜사탕을
맛보고 싶어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면



솜사탕은
입김이 되어
허공에 떠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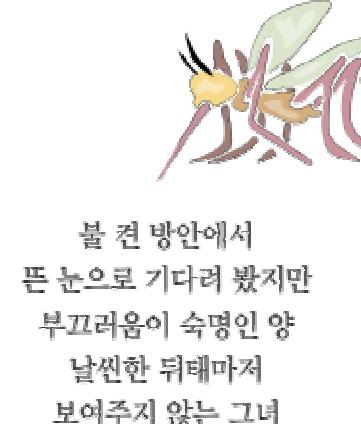
호호
불어보는 조그만
솜사탕에
기다림도 시간도 잊고
마냥 행복한
우리 가족

드디어 하늘을 날다.

늦가을의 그녀

시

강영규(광정동)



잊었다 싶으면
찾아오는 그녀

모두 잠든 새벽녘에만
몰래 찾아오는 그녀

그녀가 보고 싶어
그 새벽 졸음에 겨운 채로
후다닥 전등을 켜면

언제 왔었나는 듯
사라져버리는 그녀

불 켜 방안에서
뜬 눈으로 기다려 봤지만
부끄러움이 숙명인 양
날씬한 뒤태마저
보여주지 않는 그녀

가끔 정말 내 방엔 온 건지도 의심스러운,
그냥 한여름 밤 꿈같은 느낌의 그녀는

내 방엔 몰래 들어온
철 잊은 모기 한 마리

시

첫서리 내리고

조아연(산본2동)



조용히
혼자 걷고 싶을 때
도심을 벗어나 대야미 들길을 걸어
수리산 허리를 넘을 때가 있다
오색단풍은 화려한데
열매를 익히는 태양열은
파가운 폭양이다

벼 이삭이 황금벌판을 이루고
키 작은 콩 나무에 콩깍지가 주렁주렁
나름 자식 자랑이 한창이다
제멋대로 뻗어 나간 호박넝쿨 속 토종 호박이
넉넉한 몸을 길섶에 퍼질려 앉아 일광욕 중이다
어린잎 사이 샛노란 호박꽃이
'나 좀 봐요' 하고 하는 듯 예쁜 척 웃는다
시든 잡초 덤불 사이 홀로 편 야생화가
양증맞은 게 꼭 조화 같다

산은 산대로
들은 들대로
자연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첫서리 내리고
황금벌판이 텅 비었다
호박잎은 한 번의 서리에 까맣게 녹았다

매를 기다리는 배추밭은
푸르름에 장청년인데
제철 지난 잎들은 이미 사망했다

수리산 들래길을 걸으면서 생각에 잠긴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어제는 있을 뿐 내일은 기약할 수 없음을
왔다 가는 생명의 신비여….

독후감

열두 살 소녀 진희에게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보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

오경수(군포2동)



열두 살 소녀 진희를 통해 60년대의 삶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작품이다. 부모 없이 할머니, 삼촌, 이모와 함께 생활 중이던 진희는 자신의 성장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한다. 세상에서 자신이 본받고,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며 스스로 세상과 격리한다.

소녀를 통해 작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 와 내가 나를 보는 '나'를 표현하고 있다. 소설의 제목 <새의 선물>은 프랑스 시인 자끄 블러베르의 시 '새의 선물'을 인용한 것이라고 작가는 말했다.

"아주 늙은 애무새 한 마리가
그에게 해바라기 씨앗을 갖다 주자
해는 그의 어린 시절을 감옥으로 들어가버렸네"

자끄 블러베르의 시에서 해바라기 씨는 해에게 '사모' 와 '흡모' 라는 의미가 있는데, 해는 그것을 거부하고 어린 시절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은희경 작가는 시의 내용과 소설 속 1969년 시골 마을에서 주인공이 겪는 일들의 상황이 유사해 책의 제목을 따랐다고 말했다. 소설과 시의 내용이 조금은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내가 보는 나를 표현한 열두 살 소녀 진희는 우리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나를 비치는 거울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작가가 소설을 통해 내보인 소녀 진희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 위선적인 행동, 사랑하고 상처받고 치유되는 아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를 통해 이야기하듯 그려내고 있다.

진희가 여섯 살 때 어머니는 전쟁으로 실성해 자살하고, 아버지는 사라졌다. 외할머니와 함께 생활한 진희는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는 성숙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숙한 아이 진희는 삶의 숨겨진 비밀을 이용해 남의 속내를 예리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 세상의 질서나 도리 등의 가치를 드러낸다.

또 열두 살 소녀는 가끔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 모습에서 이모와 성장통을 함께하고, 지식인 허석을 좋아하는 모습에서 세상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아닌 순수한 소녀의 얼굴도 보여준다.

이처럼 은희경의 소설은 해학적인 문체와 심리묘사를 통해 60년대 우리의 삶이 그려졌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철없고 순수하지만 실연을 통해 성장해 가는 이모,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장군이 엄마, 착하고 인정 많은 광진테라 아줌마와 돈을 벌기 위해서 못 남성에게 교태를 부리는 미스 리, 이모를 흡모하고 있는 꽝꽝 흥기웅, 진희의 마음을 사로잡은 지식인 허석까지.

작가는 소녀 진희를 통해 우리 이웃들의 모습에서, 다양한 군상의 평범한 삶들의 이면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나를 가볍지만 깊이 있게 드러내며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군포소식>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독후감 및 서평, 시와 수필, 사진 (해상도 최소 300피셀 이상) 등
시민 여러분의 삶이 담긴 글을 기다립니다.

-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 기고방법 (통보실 ☎ 390-0663) 메일(gunpo-city@nate.com)에
기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기고자 사진 게재를 원하시면 jpg 파일을 함께 보내주세요.

10

착한 경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 2. 지원금액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주·근로자 부담액 각각 50%씩)
- 3. 가입혜택
 - 사업주: 고용촉진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지급
 - 근로자

군포시 착한가격 업소를 소개합니다.



- 상호 : 육물 떼지 갈비
- 주소 : 군포시 당산로 575(당동)
- 전화 : 453-6978
- 영업시간 : 10:00~22:00
- 휴무 : 없음(명절만)
- 돼지갈비(220g) 10,000원
- 냉면 4,000원

- 실업급여 지급, 실업자·재직자(기간제, 일용근로자 등) 취업을 위한 훈련 비용 지원 등
-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을 지급하고, 평생 보장

4. 신청방법 : 사업주가 직접 신청

사장님의 첫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분
-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신 분
-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아야 함

일용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중 선택 가능

④ 적용제외 사업

-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은 임금근로자와 동등하게 기입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건설공사 종사자,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 사실상 자영업자(창업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부동산임대업도 제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1350

군포시 효 실천업소를 소개합니다.



- 상호 : 돈내코통삼겹 금정점
- 대표 : 박증미
- 주소 : 당산로 135번길 3(금정동, 1층)
- 전화 : 452-5925
- 효 실천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20여 명에게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무료급식

이달의 고용 우수 기업



- 기업명 : 퍼슨메디칼
- 소재지 :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14-16, 2층(금정동)
- 업종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근로자수 : 20명
- 신규채용 : 생산직 1명 (기술영업 1명 채용 진행 중)



군포일자리센터 12월 추천 일자리 | gup.intoin.or.kr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미화케이블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동)	전선 종합 유통업	전선자재 납품 및 창고 관리 1명	0830~1830	연봉 2,400만원	031-479-2222
엘케이테크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관양동)	전자 설계 CAD PCB ArtWork (PADS, CADSTAR), SMT	전자 설계 PCB ArtWork 직원 2명	월~금, 0900~1800	연봉 3,000만원	070-822-5008
(주)피코아이엔씨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동)	안테나/센서/RF모듈을 제조 및 유통	전자부품 영업사원 모집 1명	0900~1800	연봉 2,000만원	031-479-1829
(주)천광엔지니어링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9번길 (안양동)	전기감리, 소방감리	소방감리원(중급 이상) 3명	0900~1800	연봉 2,600만원	031-448-0770
(주)산광기계	군포시 능심로 (당정동)	성형기 제작	CNC 선반 조작원 1명	0830~1730	연봉 2,000만원	031-451-2911
아이엔에스엘티디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호계동)	미국 MKS社 의 진공 관련 센서 및 기타 관련 제품 판매 및 영업	기술 영업사원 1명	0830~1830	연봉 2,400만원	031-383-7745
내츄럴푸드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번길 (호계동)	음식점	조리실장 1명	평일, 08:00~20:00 토요일, 0900~1400	월급 230만원	031-451-2405
(주)월드레이팅	군포시 엘에스로 (산본동)	恻지브랜드 신발 온라인 판매	[경력자경리, 회계 담당자] 1명	0900~1900	연봉 2,300만원	031-454-6094
삼진스틸산업	군포시 대야2로 67번길 (대야파동)	철근 가공	기술 사무직 경력직원 2명	0800~1800	연봉 2,600만원	031-437-6622
델코전자(주)	군포시 산본로 2번길 (당정동)	전원공급장치	전자회로 개발 전자 엔지니어 2명	0900~1800	연봉 2,000만원	031-451-6864
덕원산업개발(주)	군포시 군포로 (금정동)	가설물타리, 냉동원스, 기타 금속구조물 칭호공사업	[경력자]영업 및 현장관리 직원 1명	0900~1800	연봉 3,000만원	031-458-0300
엘에스통신주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95번길 (석수동)	CATV 기자재 생산	전자부품 기술 1명	0900~1800	연봉 2,500만원	031-474-3028
(주)에이비아이미징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관양동)	차량용 블랙박스 외 제조	재고제품, 원부자재 등 관리 업무 1명	0900~1800	연봉 2,500만원	031-382-7400
(주)광신기공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금정동)	다축헤드 제작	기계설계 및 자동화기기 설계자 1명	0830~1720(토요 격주 근무)	연봉 3,500만원	031-477-2470
(주)자비오	의왕시 고산로 (고천동)	국내산 브랜드 돈육 대형마트 유통	생산제조 포장감수 및 입출고관리 직원 2명	0830~1830	월급 160만원	031-458-3009
(주)아르데코 (한화L&C 대리점)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관양동)	건설사 아파트 인조대리석 주방상판 가공 및 시공, 재자판매	영업주방가구상판 납품 및 시공 1명	0830~1830	월급 190만원	031-388-5010
(주)메이빈	경기도 의왕시 이파로 (포일동)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 수출입	SUPER EP 기발영업 경력사원 2명	0900~1800	연봉 4,500만원	031-386-3991
대동자동기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안양동)	기계부품, 포장기계	밸용선반 밀링 직원 1명	0900~1830	연봉 3,000만원	031-443-6780
(주)대성산업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관양동)	영수증 발행기 외	기구설계자 1명	0900~1800	월급 200만원	031-463-4150
명인정밀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박달동)	IT임기공2호기	사출 금형 밀링조직원 2호기 기술자 2명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월급 250만원	031-468-9242
주식회사제인상사	군포시 텁정로 28번길 (당정동)	네일, 타투, 모바일 스티커 디자인해 자체 제작	시각디자이너 2명	0900~1800	연봉 2,600만원	031-457-1133
성안비엔대주(주)	군포시 군포로 580번길 (당동)	음료 도매	거래처 납품 및 관리 직원 1명	0830~1830	연봉 2,000만원	031-466-5572
(주)웨이퍼랩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당정동)	웨이퍼 제조	경리 및 회계 사무원 1명	1830~1830	연봉 2,200만원	031-454-7751
광우어어벌	군포시 고산로 (당정동)	의류 제조업	미싱기능사 3명	0830~1900	월급 130만원	031-436-1040
시온스크린	군포시 당정로 (당정동)	화장품용기 실크인쇄 금박	인쇄기 조작 생산원·화장품 용기 인쇄 3명	0900~1800	시급 5,210원	031-429-9477
(주)신한국보안시스템	서울시 종로 을지로 (을지로3가)	경비, 청소 용역	물류 상하차 직원 1명	0800~1700	월급 150만원	02-2263-9048
(주)불루정보	군포시 당정역로 4번길 (당정동)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 도매	컴퓨터 주변기기 수리 및 영업 지원 1명	0900~1830	월급 130만원	070-4651-0757
진테크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35번길 (안양동)	반도체 부품 가공 외	머시닝센터(MCT) 조작원 1명	월·화·목·금 0900~2100 / 수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1700(격주 휴무)	월급 225만원	031-466-5635
주식회사센바이텍	군포시 엘에스로 182번길 (산본동)	의료용 기기 제조 및 판매	의료 미용기기 생산직 1명	0900~1800	시급 5,210원	031-477-7964

군포일자리센터는 동영센트럴타워 504호(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교육 등을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들과 전담 공무원 등이 항상 대기 중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4년 11월 20일 기준 구인정보입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기업별 맞춤형 상설 면접, 채용 대행

참여문의 : 390-0347

12

군포의 역사와 문화

철길과 꽃길이 만나
문화산책길로 변신하다

도시 한복판에서 철길과 꽃길을 따라 한적하게 걸으며,
삶의 여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군포수릿길의 하나인 '골프장둘레길'로 가보자.
골프장둘레길에는 또 다른 특별한 요소가 있다.
가족이 함께 걷고 싶은 길, 연인들이 찾아가고 싶은 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군포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마치 벽화와 같은 담쟁이 넝쿨



군포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벽화

유휴지와 농로길을 활용하여 둘레길을 만들다

신기천꽃길이 있었다.
당정근린공원에서 용호초등학교 사이를 흐르는 신기천 옆으로 조성된 신기천꽃길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이 용도가 높았으나 그 구간이 짧아 아쉬움이 있었다.

군포시에서는 신기천꽃길과 당정역 철로변 유휴지, 삼성천변의 농로길과 연계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여 골프장둘레길을 만들었다.

골프장둘레길은 총 연장 4.6km 구간으로 천천히 걸으면 70~80분이 소요된다.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부지 무상사용,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과 골프장 구간 무상사용 협약 체결을 맺으면서 둘레길 조성이 시작되었다. 이후 삼성천변 정비구간을 안

양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철로변과 삼성천 사이 구간 또한 복합화물터미널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면서 2014년 11월 7일 도시 속 문화산책길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골프장둘레길에는 볼 것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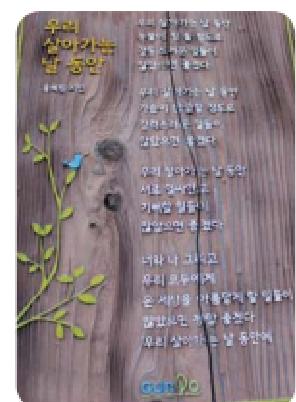
하천과 철길 옆으로 조성된 꽃길도 아름답지만 골프장둘레길에는 만남의 광장, 미니 북카페, 덩굴식물원, 대나무숲 등 다양한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둘레길을 걷는 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덩굴식물원은 기념사진 촬영 및 생태교육 등의 장소로 인기가 높아 찾는 이들이 계속 늘고 있다.

시민갤러리 또한 새로운 볼거리이자 시민 참여 공간이다. 군포의 어린이 800여 명이 참여한 그림과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군포옛이야기 벽화,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 시민갤러리는 골프장둘레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갤러리의 주제적인 작품 공모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당정근린공원에서 출발하여 철로변 길과 삼성천 구간을 지나 47번 국도를 끼고 걷다가 용호초등학교와 용호중학교가 있는 신기천을 지나 다시 당정근린공원으로 걸어오는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린다.

늦가을의 담쟁이 넝쿨을 배경으로 엄마와 산책 나온 아이들은 물론이고 중년의 다정한 부부와 젊은 연인 등 군포 시민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신기천 구간부터 둘레길을 시작해도 좋다. 어느 곳으로 방향을 잡던 무슨 상관이겠는가. 둘레길만 걸으면 되는 것을.



신기천 구간에 볼 수 있는 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용하고 아늑한 신기천 구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다양한 작품들
덩굴식물원
골프장둘레길 완공 기념 걷기대회



13 책 읽는 군포

군포소식 제331호



어린이와 함께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군포시 부곡동 부곡 3단지에 있는 '토리작은도서관' 입구에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안고 있는 귀여운 모습의 명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도토리처럼 작지만 알차고 단단하게 발전하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도서관이 그러하듯이 토리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의 경우도 아파트 입주와 함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LH공사가 기증한 도서 1,000권과 시에서 지원한 1,000여 권의 도서를 모아 임주자대표회의가 마련한 공간을 활용하여 2011년 6월 2일 군포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했다. 처음에는 1인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도서대출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봄부터였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부녀회 게시판 적극 활용

"도서관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도 부녀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부녀회의 입장에서도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박경희 도서관 관장은 현재 아파트 부녀회장도 겸직하며 도서관이 아파트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도록 노력해왔다. 부녀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과 도서관 사서 선정은 물론,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 주민들의 공모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냈다.

부곡 3단지는 그 입주자들이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들 둔 30~4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에 관심도 많았고 참여도와 호응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도 만들어 냈는데 '전래동화와 함께 하는 전래놀이', '동화야, 요리하자', '상상의 날개 책으로 펼치다', '글짓기, 사생대회' 등은 모두 단지 주민들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다.

도서 아나바다 운동으로 주민들의 참여 이끌어내다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도서 아나바다 운동 역시 이곳 도서관의 자랑거리이다.

봄과 가을에 도서관 앞 작은 광장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집에서 보지 않는 책을 가지고 나와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도서 아나바다 운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 개최하는 독후감 대회 역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독후감 대회는 처음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서로 참여하겠다며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면서 인기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다.

"독후감 대회뿐 아니라 지난 봄에 시행했던 사생대회에도 50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작품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아나바다 행사나 야시장 등 아파트 단지 내 행사에서 아이들 작품 전시회를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답니다."

3단지 주민들은 입주 초기만 하더라도 부곡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단지에서 그리 멀



독후감 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원고

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도서관을 찾는다고 한다. 도서관 운영이나 프로그램 등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의 이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장소의 협소함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늘어나는 도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기존의 장소만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운동시설(탁구장)로 활용하던 공간과 도서관을 서로 바꾸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의하였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모임 자리에서도 장소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되어, 지난 10월 15일에 도서관이 이전하게 되었다. 새로 이전한 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아이들이 책도 보고 놀아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전 이후 도서관 이용자들은 더욱 늘어나 이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말에는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평소 엄마들의 전용(?) 이었던 도서관이 아빠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박경희 관장은 부곡 3단지 뿐만 아니라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모든 부곡 주민이 함께 연합하여 참여하는 도서관 행사를 꿈꾸고 있다.

토리작은도서관에서 시작되는 그 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경희 관장



도서관 앞 광장에서 개최한 아나바다 벼룩시장



800여 일개미들이 꿈꾸는 2015년

“안전하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군포”

하루하루, 매달, 매년 변화하고 성장하는 군포.
2015년의 군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800여 일개미 공직자들이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만들어갈 2015년의
군포시 청사진을 소개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한다.



〈김윤주 군포시장이 12월 1일, 군포시의회에서 낭독한 시정연설 요약·정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2015년을 ‘안전군포’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
안전의 핵심은 인간 존중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점
검을 시행해 실효적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
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표준행동 지침을 재정비하겠다.

그동안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행
사까지도 안전관리 준칙을 적용하는 등 안전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계절별·시설별 정기 안전점검으로 재난
요소를 사전에 일소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생활
보장을 위해 CCTV보강, 스쿨존·실버존 확대, 어
린이 안전학교 보안관활동 강화, 공동주택 안전
진단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 생활안전과 연계된 전 분야에서 전략적·선
제적 예방활동을 펼쳐 모든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안전이 기본인 행복한 군포를 만들겠다.



희망을 꿈꾸는 전국제일의 교육도시 완성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재원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의 안전망 네트워크도 좀 더 체계화하겠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건
립으로 전문상담 프로그램과 쉼터기능을 제공하
고 청소년 전용 카페 확대 운영으로 청소년 보호
에 더욱 힘쓰겠다.

또한, 청소년 교육특구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게 각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과 시설현대
화를 지원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
고, 평생학습 축제와 참여형 평생교육으로 일과
학습 그리고 소통과 공감이 가득한 평생학습 환경

을 만들겠다.

아이들의 보육에서부터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창조적 평생학습과 희망교육은 군포시민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동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도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고, 도시 공간구
조와 장기비전을 반영한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을 수립해 도시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노후
화된 공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에 속도를 내겠다.

특히 대규모 공장 이전으로 공동화된 두산유
리 부지에 1천억 원 상당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
할 것으로 평가받는 ‘두산그룹 첨단연구단지’ 유
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군포첨단산업단지 조기
완공으로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을 유치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할 것이다.

또 보령제약 부지와 연계한 금정역세권 종합개
발, 유한양행·LS전선 부지개발과 당동·당정동
공업지역 정비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 품격있고 균
형 잡힌 도시환경을 만들겠다.

한편으로는 ‘군포 산업진흥원’을 건립해 기업
및 근로자 종합지원체계를 만들고, 소상공인 창
업 및 경영지원, 전통시장 특화사업, 일자리센터
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 활성
화 사업들을 병행하며 풍요롭고 활기찬 군포의 성
장 동력을 창출하겠다.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맞춤복지 실현

신설될 대동(大洞)과 주민센터의 기능을 맞춤
복지행정 중심으로 개편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복
지서비스 기반을 구축, 시민 삶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선진복지행정을 실현하겠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 여가활
동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를 예

정대로 개관·운영하고,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를 신설해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과 독거노인 공동
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
하겠다.

또한, 야간보육시설의 확충과 출산장려금·보
육료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
성,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가정과 직장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교통약자 이동차량 확대 운영, 장애인
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자립 능력을 향상하는 배
려의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생활문화 조성

‘책 읽는 군포’는 올해 ‘2014년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주관하고, ‘제1호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되며 ‘책의 수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내년에는 책 박물관 조성, 디지털 및 실버 도서
관 등의 건립도 추진하면서 첨단과 복지가 어우러
진 선도적 독서문화 창조의 기반을 만들 것이다.

‘칠쪽도시 군포’는 양지공원 리모델링에 따라
칠쪽동산과 연계한 칠쪽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리산 명소를 이어주는 총 6.7km의 ‘칠쪽둘레길’
조성을 추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웰빙 도시의 브
랜드를 확장하겠다.

행복한 군포는 가족에서 시작되고 가족의 중심
은 여성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낮추면
서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다문화 가정
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를 통해 ‘아동·여성 폭력 없는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





중앙도서관 주차장 사용중지 연장 안내

중앙도서관 주출입구 환경개선 공사가 지연돼(일부 작업공정 변경) 안전을 위해 주차장 사용 중지 기간을 연장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라며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종지일 : 2014. 11. 5(수)~11. 30(일)
- 변경 종지일 : 2014. 11. 5(수)~12. 7(일)

중앙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 이용 안내

주차장 공사 기간 중 무인도서반납기 이전으로 인해, 자료실 이용시간 외에는 다음과 같이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장소 : 1층 현관(왼쪽), 수리산산림욕장 약수터 옆 자전거보관대 앞
- 처리방법 : 익일 반납일 보정 후 전산처리
- 운영시간 : 자료실 운영시간 외 시간
월~일 18:00~익일 08:30(단, 휴관일인 금요일은
목 18:00~토 08:30)

*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390-8880

산본도서관 – 100세 시대 건강특강 100세 시대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

산본도서관은 100세 시대를 맞아 관내 전문가를 모시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의일시 : 2014. 12. 9(화), 12.16(화) 10:00~12:00
- 강의장소 : 문화강좌실(산본도서관 2층)
- 강사 : 전희숙(산부인과 전문의)



12월 수요영화산책

12월 3일 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4일 12월 31일



글루미 컨데이(2003)
•장르: 드라마, 로맨스
•시간: 114분
•감독: 풀프 슬립
•주연: 에리카 미로진, 스테파노 디오니시
•등급: 19세이상 관람가



페밀리 맨 (2000)
•장르: 드라마, 로맨스
•시간: 126분
•감독: 브렌 라트너
•주연: 니콜리스 케이지, 디아 레오니
•등급: 15세이상 관람가



로맨틱 촬리데이(2006)
•장르: 드라마, 로맨스
•시간: 126분
•감독: 브렌 라트너
•주연: 니콜리스 케이지, 디아 레오니
•등급: 15세이상 관람가



크리스마스 캐롤(2009)
•장르: 코미디, 로맨스
•시간: 96분
•감독: 코미디, 로맨스
•주연: 카에론 디아즈, 케이트 윈슬렛
•등급: 15세이상 관람가



에수 (1940)
•장르: 가족, 판타지
•시간: 96분
•감독: 로버트 저에키스
•주연: 짐 캐리, 폴린 피스
•제작: 올드먼
•등급: 전체 관람가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 소극장 (중앙도서관 지하 1층)
- 문의 : 390-8884

- 선착순 80명, 무료관람
(상영 20분 전부터 입장가능)
- 음식물 반입 금지

* 영화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도서관 가족극장

12/6(토)	12/7(일)	12/13(토)	12/14(일)	12/21(일)
전체, 142분, 한국어	전체, 126분, 한국어(자막)	전체, 95분, 한국어	전체, 88분, 한국어(자막)	전체, 97분, 한국어

12/27(토)	12/28(일)
전체, 80분, 한국어	전체, 100분, 한국어

* 12월 20일(토)은 음악회가 진행되어 영화는 상영하지 않습니다.

• 장소 : 3층 소극장
• 시간 : 오후 2시 50분부터 선착순 입장

■ 모집기간 : 2014. 12. 2(화) 09:00 ~ 마감시

■ 모집대상 : 군포시도서관 회원 60명

■ 모집방법 : 온라인 선착순 접수(www.gunpolab.or.kr
-문화행사-문화행사신청-산본도서관)

■ 강의일정

날짜	강의내용
1강(12/9)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법(정신적 건강관리)
2강(12/16)	갱년기 여성 건강관리법(육체적 건강관리)

산본도서관 390-8842

도서 기증 안내

■ 기증 방법

- 도서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회수
- 기증자 도서관 방문 기증
- 우편 기증

■ 자료 선별 기준

- 자료의 상태가 양호한 당해년 기준 5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
- 기증제외 자료

- ① 낙서, 훼손 등이 심한 자료
- ② 복사본, 문제집, 교과서, 청소년 유해도서, 과월호 정기간행물, 사보, 판타지소설, 만화, 구판도서 등 기타 자료로서 도서관에 소장이 부적절한 자료

■ 기증도서 관리방법

-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며, 도서관에 동일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타기관에 재기증 또는 무료도서 교환코너에 자료를 비치

* 무료도서 교환코너는 중앙도서관 1층 로비, 산본도서관 2층 북카페에 설치 운영 중

- 기증도서 인계증은 기증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함

■ 기증관련 문의

- 중앙도서관 : 390-8874 / 산본도서관 : 390-8843
당동도서관 : 390-8681 / 대야도서관 : 390-8673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사용중지 안내문

2015년부터 운영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대여 센터 공사로 인하여 북카페(휴게실) 사용을 다음과 같이 중지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휴게실은 1층 로비(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중지일 : 2014. 12. 8(월) ~ 2015. 4. 30(목)

*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쉼터에서 음식물 섭취 불가함(단, 음료 및 야기 이유식 가능)

■ 공사내용 : 어린이 장난감 대여센터 공사 & 휴게실 공간 신설공사

어린이도서관 390-8686



궁금!! 책읽기 독서회 모임 지원 안내

관내 독서 모임 지원사업으로 독서토론회의 이론과 실제, 독서토론회 과정 강연 및 독서회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운영안내

- 운영일정
 - 1회 12. 9(화) 10:00~12:00(1차)/19:00~21:00(2차)
 - 2회 12. 16(화) 10:00~12:00(1차)/19:00~21:00(2차)
 - 3회 12. 23(화) 10:00~12:00(1차) 학교 담당자를 위해 야간시간 추가 운영
 - 4회 12. 30(화) 10:00~12:00(1차) - 독서회 모임일 증 대책
 - 운영장소 : 중앙도서관 소극장(지하 1층, 개별모임장소)
 - 모집대상 : 독서회 리더 및 회원 100명(2명)
 - 독서회 10팀(맞춤별 1:1 독서코칭)
 - * 3회의 내용 중 강연한 항목 가능할 경우도 신청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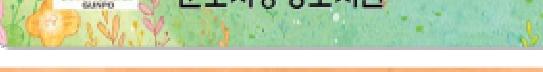
◆ 운영내용

날짜	강의주제	강연자	비고
12. 9(화)	독서토론회 이론과 실제 - 분야별 독서법, 독서도록과 디렉티브의 차이, 독서토론회의 고요증 등	윤석운, 서아영	
12. 16(화)	스마트폰 눈에 - 독서토론회와 스마트폰 눈에, 독서토론회의 역할과 노하우	윤석운	
12. 23-25 독서회 모임일	독서회별 맞춤 1:1 독서코칭 운영방법	서미경, 조현희, 정아연	독서회 10팀

◆ 신청내용

- 신청기간 : 2014. 11. 24(일) 10:00 ~ 마감시까지
- 신청방법 : 공문 또는 전화신청
 - * 독서교정 신청 시 소정 양식의 신청서 작성 필요
- 문의 : 390-8883(담당: 박소영)

군포시종양도서관



12월 수요영화산책



어린이도서관 가족극장

12/6(토)	12/7(일)	12/13(토)	12/14(일)	12/21(일)
전체, 142분, 한국어	전체, 126분, 한국어(자막)	전체, 95분, 한국어	전체, 88분, 한국어(자막)	전체, 97분, 한국어

12/27(토)	12/28(일)
전체, 80분, 한국어	전체, 100분, 한국어

* 12월 20일(토)은 음악회가 진행되어 영화는 상영하지 않습니다.

• 장소 : 3층 소극장
• 시간 : 오후 2시 50분부터 선착순 입장



2014 송년음악회

일 시 : 2014. 12. 6(토), 19:00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공연장르 : 클래식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시간 : 120분(인터미션 포함)
 공연요금 : 일반석(전석) 20,000원
 공연내용 : 베토벤 합창 교향곡 공연, 군포 프리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군포시민합창단, 군포시립여성합창단 등이 함께 협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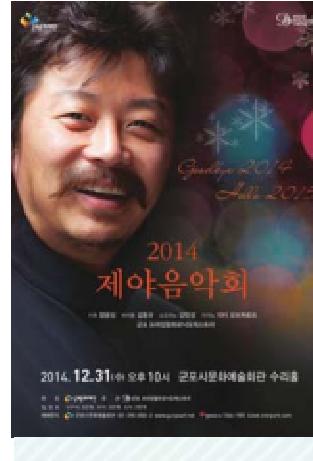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일 시 : 2014. 12. 12(금)~12. 13(토)
 금 19:30 / 토 15:00, 19:30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공연장르 : 발레
 관람연령 : 5세 이상
 관람시간 : 120분(인터미션 포함)
 공연요금 : R석 60,000원, S석 50,000원, A석 40,000원
 공연내용 : 공연의 배경이 크리스마스인 고전 발레의 대명사,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중 하나, 차이콥스키 선율미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재즈콘서트 with 응산, 이정식, 류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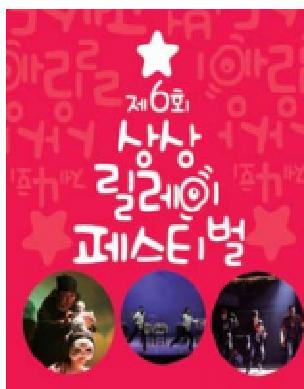
일 시 : 2014. 12. 24(수), 20:00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공연장르 : 재즈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시간 : 100분(인터미션 없음)
 공연요금 : R석 50,000원, S석 40,000원
 공연내용 : 크리스마스를 맞아 재즈 보컬리스트 응산, 색소 포니스트 이정식, 퍼커션니스트 류복성이 함께하는 음악회



2014 제야음악회

일 시 : 2014. 12. 31(수), 20:00
 장 소 :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공연장르 : 클래식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시간 : 120분(인터미션 포함)
 공연요금 : VIP석 50,000원, R석 30,000원, S석 20,000원
 공연내용 : 바리톤 김동규, 소프리노 김민성과 함께하는 제야음악회.

| 공연문의 | 군포문화재단 군포시문화예술회관 390-3500~2



제6회 '상상릴레이 페스티벌'

"상상극장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할 신나는 가족극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을 위한 문화축제로 마임인형극, 타악퍼포먼스, 탑댄스 등 새롭고 신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일 시 : 2014. 12. 17(수)~12. 19(금)
 장 소 :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공연장르 : 마임인형극, 타악퍼포먼스, 탑댄스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공연료 :

종 류	일반가격	행복한상상회원가격
1인권	8,000원	6,000원
2인 부모 동반 가족티켓	12,000원	10,000원
3인 부모 동반 가족티켓	15,000원	12,000원
4인 부모 동반 가족티켓	18,000원	14,000원
모듬 패키지 (3개 공연)	15,000원	12,000원

공연내용

- 1번째 릴레이 12. 17(수) 16:00 / 19:30
 - 이미지극단 '미리'의 마임인형극 '할미꽃이야기'
- 2번째 릴레이 12. 18(목) 16:00 / 19:30
 - '한얼국악단'의 타악퍼포먼스 'マン투맨'
- 3번째 릴레이 12. 19(금) 19:30
 - 국내 최정상 탑댄스그룹 그라운드잼의 '크리스마스탑'

| 공연문의 | 평생학습원팀 390-3054~5



인도와 관련된 무료영화 상영 영화로 떠나는 인도

일 시 : 2014. 12. 4(목) 14:00
 장 소 : 여성회관 대회의실(2F)
 공연장르 : 드라마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
 관람시간 : 163분
 관 람 료 : 무료

| 공연문의 | 여성회관팀 390-3080



"엄마와 딸 사이에 분꽃이 피다"

평생학습원 '공간 사이' 개관 기념 특별展 개최

(재)군포문화재단 군포시평생학습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간 사이'라는 이름의 전시공간을 11월 24일 개관했다.

평생학습원 내 5

층 상상극장과 동화나무 어린이 도서관 사이의 주 공간과 3층과 4층 보충공간에 꾸며진 '공간 사이'는 앞으로 또 다른 사이 공간이 발생하면 점차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문화재단은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공간 사이'는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 마을과 마을사이에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꽂아주는 열린 공간을 뜻하는 이름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 공간에서 보다 다양한 전시를 기획·시행해 지역사회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시각예술 콘텐츠를 창출해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사이' 개관을 기념해 신채원 작가의 시집 <분꽃이 피는 시간>을 주제로 시화전을 개최 중이다.

2013년에 발행된 <분꽃이 피는 시간>은 작가가 글을 쓰고 딸이 책 속의 삽화를 그려 완성한 작품으로,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전시에서는 책 속 인듯한 공간에서 엄마와 딸이 힘을 합쳐 만든 다양한 작품이 선보여진다.

평생학습원 390-3055